

고창군,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 첫발

지역 예술인들과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 열고 의견 나눠

고창군이 지역 문화예술 부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예술인들과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열고, 정식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군 군립미술관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에 고창군은 예술의 자존심을 세우고,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등록미술관으로서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축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미술 고창 지부장 박미애는 "고창에 좋은 작가들은 매우 많은데 아들을 쫓아 실이 없다"며 "제대로 된 미술관이 하루 빨리 마련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청 오대중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간담회로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향후 고창미술사 연구 포럼, 미술관 주제제를 확립하는 미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최근 지역 예술인들과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열고, 정식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군립미술관 건립 계획을 보완하며 향후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민반의 준비를 다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이경재 교수,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발간

전주대학교 이경재 교수(금융보험학과)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험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한 책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보험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이 교수가 지난 30여년 간 보험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집필한 고급 교양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책을 통해 보험과 시(詩), 영화, 문학, 역사, 경영, 경제, 철학, 심리학, 법 및 일상을 접목, 어렵고 딱딱한 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물론 보험과 더불어 풍요롭고 운택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읽으며 보험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을 배울 수 있다.

이경재 교수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고, 보험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다. 보험 관련 모든 분야가 인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보험 저술이라고 해도 보험으로만 구성된 책은 대중들이 읽지 않는다. 그래서 인문학과 보험을 버무려서 일반인들에게 재미있게 읽힐 수 있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보험재테크 70가지'를 비롯해 수많은 보험 및 인문학 관련 서적



과 학술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서울문학과 한국문단을 통해 시인이자 시조시인으로 등단했으며, 보험 전공 외에 '시(詩)와 함께하는 치유와 행복의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2일 무용단 정기공연 '무락, 춤추며 놀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는 국악원무용단이 펼치는 정기공연 '무락(舞樂), 춤추며 놀다'를 오는 22일 오후 7시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은 박희태(우석대학교수) 연출로, 무대 삼면에 9개의 문을 세우고 화선부와 민살풀이, 교방굿거리, 설장구춤, 동고를 문 안에서 추는 춤과 문 밖에서 추는 춤으로 연결, 미니 말한 무대디자인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새로운

민속춤의 미학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남원지역의 춤 자산인故 조갑너 명무의 '민살풀이춤'과故 양도일 명인의 설장구를 새롭게 정립한 박은하류 '설장구춤'을 초연하고, 기존 북춤을 바탕으로 채향순 명무가 재창작한 '동고'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국립민속국악원 박수영 안무자는 "우리 민족

의 삶과 풍류를 담아 민속춤을 재조명할 수 있는 무대로 우리 원 무용단원들이 민속무용의 정수를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고' 모습.



'설장구춤' 모습.



'전주 어디까지 알아보았니?' 체험행사

한국전통문화전당, 8월 6일까지 초등학교 대상 접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여름방학 기간 중 전주의 역사, 문화, 음식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전주 어디까지 알아보았니?' 체험행사를 오는 8월 12, 13일 이틀간 총 4회 진행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활동 기회가 적었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전주한지수첩 만들기 ▲전주문화해설 및 입체퍼즐 만들기 ▲떡갈비를 품은 전주비빔밥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전반 1~3학년, 오후반 4~6학년으로 나누어 각 회차별 총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유료

(1인 5000원)로 진행된다.

접수·모집은 회차별 15명씩 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이날 19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체험활동에 제한이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전주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가진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